

이승구 박사의 개혁파 조직신학 방법 연구

안명준 (한국성서대학교 초빙교수)



이 논문은 개혁신학자 이승구 박사의 조직신학 방법을 연구한 것이다. 그는 1990년 이후 한국교회와 한국 신학계에서 많은 활동을 하는 학자중에 한 명이다. 그는 많은 학술서적을 번역했으며, 자신의 저서와 세계 신학계의 중요한 논문을 출판했다. 본 연구는 박윤선 박사, G. Vos, C. Van Til, 그리고 D. Wells의 영향을 받은 그의 개혁신학의 형성과정을 살펴보고 그의 개혁신학의 전제, 원리, 방법, 특성을 밝히는 것이다. 그의 개혁신학이란 성경에 기초하고 있으며, C. Van Til이 사용한 그의 조직신학 방법론은 G. Vos와 함께 성경신학에 기초하고 있다. 그의 개혁신학의 특징은 하나님 주권을 강조하는 것, 성경에 충실한 조직신학을 추구하는 것, 공교회의 신조들에 매우 충실한 신학과 교회를 위한 신학을 추구하는 것, 언약 신학(covenant theology)을 중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 신학을 강조하는 것이다. 올바른 성경적 신학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한 그의 개혁신학적 성경신학적 접근의 유익을 살펴본다.

주제어: 개혁신학, 조직신학, 성경신학, 계시의존적 사색, 보스

I. 서론

본 논문은 조직신학자인 성암(聖岩) 이승구 박사의 개혁파 조직신학에 대한 연구이다. 그는 개혁신학과 관련된 번역서와 저서들 그리고 논문들을 출판하였고, 조직신학뿐만 아니라 성경신학, 세계관, 문화관 그리고 기독교 윤리에 관한 발표를 통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²

아직 그의 개혁신학에 대한 선행적 연구들이 없어서 국내외 학자들이 그의 저서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소개하려고 한다. 먼저 평가에 앞서서 영국의 개혁신학자 로버트 래탐(Robert Letham) 교수가 2019년에 출판한³ 조직신학 책을 성암이 추천하였다. 이 책에서 가장 성경적이며 개혁파적인 신학자의 진술들을 발견할 수 있고, 특히 20세기에 바빙크(H. Bavinck), 벌코프(L. Berkhof) 등의 정리와 비교 속에서 21세기에 바빙크에 충실하고 기독교의 정통적 가르침을 더 잘 설명하는 신학자의 노력을 볼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 책에 대한 서평에서 성암은 이런 작업을 한 래탐에게 국내 학자들을 세계적 대화의 무대로 이끌어 낸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한다.⁴ 그런데 이 책의 출판에 앞서서 성암은 2009년 세계개혁신학회 학회지(*Journal of Reformed Theology*, E.J.Brill)에 삼위일체에 관련한⁵ 논문을 기고하였다. 래탐 교수는 자신의 조직신학 책

¹ 이승구, “개혁파 정통신학에 대한 멀리 테제에 대한 교의학적 성찰”, 「성경과 신학」 43권 (2007): 71-110.

² Seung-Goo Lee (李承九, Korean: 이승구, February 1, 1959~) was selected a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scholars in the field of the Bible and theology in 2011. Cf. En.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Seung-Goo_Lee. 2023-12-05 접속. 그의 삶과 신학에 대한 최근의 글로 안명준, “이승구 박사의 생애와 신학”, 『한국의 신학자들 2』 (인천: 아벨서원, 2023), 628-723. 안명준, “성암 이승구 박사의 개혁신학 탐구: 개혁신학의 형성과 개혁파 조직신학”, 「신학정론」 제 41권 1 호 (2023): 15-62.

³ Robert Letham, *Systematic Theology* (Wheaton: Crossway, 2019).

⁴ 이승구, “래탐 교수님의 『조직신학』을 추천하면서”, 「합신은 말한다」 Vol. 36-2, 2021-06-15, http://htsn.kr/?page_id=4559&wr_id=620. 2023-12-03 접속.

⁵ Seung Goo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ntological Trinity and the Economic Trinity,” *Journal of Reformed Theology* 3 (1) (2009): 90-107.

에서 이 논문이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직접 언급한다. 성암이 학자로서 최초로 독창적으로 주장한 존재론적 삼위일체는 경륜적 삼위일체의 존재의 근거(the ground of being)라고 하며, 경륜적 삼위일체는 존재론적 삼위일체를 인식의 근거(the ground of cognition)라고 이론화시킨 것에 동의를 표하면서, 하나의 삼위일체가 있음이 분명하게 있다면 이 견해는 큰 공헌이 된다고 평가하였다.⁶ 래탐의 평가 이외에도 성암은 특별히 해외 국제학술지에 여러 편의 논문을 기고하여 한국의 개혁신학자로서 그의 학문적 활동을 하고 있다.⁷

국내 몇 학자들에게도⁸ 그의 저서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었는데 대표

⁶ Seung Goo Lee proposes a refinement of Rahner's axiom that goes against its abuse. He writes, "The Classic understanding of the Trinity lies in asserting the following proposition without any reservation and without any condition: The ontological Trinity is the ground of being for the economic Trinity; and the economic Trinity is the ground of cognition for the ontological Trinity. Professor Lee has made an increasing contribution, provide it is clear that there is only one Trinity. Robert Letham, *Systematic Theology*, 146. 성암의 이 논문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ntological Trinity and the Economic Trinity"은 현재 이 저널에 초록 검색은 3245명, 텍스트를 읽은자가(Full Text Views) 346명, 유료 다운이(PDF Views & Downloads) 278명으로 되어있다. 이 논문이외에도 10개의 논문을 이 저널에 등재되어 있다. https://brill.com/view/journals/jrt/3/1/article-p90_4.xml?ebody=metrics-63181. 2024-03-21 접속.

⁷ 그가 기고한 신학관련 영어논문들과 발표한 글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Seung-Goo Lee, "A Christian Answer to the World of Violence," In *Christian Faith and Violence Vol. 2. Studies in Reformed Theology* 11 (2003): 202-26; "A Proposal for a Apostolic, Biblical, Eschatological Theology," E. A. J. G. Van der Borgh, (Ed.) *Religion Without Ulterior Motive*, 159-78 (Leiden & Boston, Brill, 2006); "A Social Function of Coram Deo in the Thought of S. Kierkegaard," *Journal of Reformed Theology* 1/2 (2007): 153-76; "Pluralisme religieux et christianisme: Avec une reference speciale a l'interpretation du pluralisme religieux de John Hick," *La Revue Reformee* (Marseille) 249-60/1-2 (249) (January, 2009): 87-103; "Calvin's Understanding of the Imago Dei and that of the Later Reformed Theologians: A Development?" at the 10th IRTI Conference at Aix-en-Provence, France, 6-12 July, 2009; "A Biblical Theological Hermeneutics, the Pure Preaching of the Word of God, and the Unity of the Church," In *The Unity of the Church: A Theological State of the Art and Beyond*, 105-10 (Leiden and Boston: Brill, 2010); "L' <imago deï> vue par Calvin et par les theologiens reformes qui ont suivi," 'Contre vents et marées (Interpretation, 2014): 161-85. "Calvin and Later Reformed Theologians on the Image of God," *Unio cum Christo* 2/1 (Aril, 2016): 135-47; "The Promises and Dangers of Public Theology," *Unio cum Christo* 6/2 (2020): 133-45.

⁸ 안명준, "서평: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강해 시리즈 3: 위로받은 성도의 삶,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월드뷰』 28권 9호 (통권 183호) (2015): 42-46. <https://www.worldview.or.kr/library/article/2251>. 2023-12-03 접속. 안명준, "서평 우리 교회의 신학, 어디쯤 있나 <우리 이웃의 신학들>," 『월드뷰』 27권 11호 (2014): 46-49. <https://www.worldview.or.kr/library/article/2037>. 여기서 성경적 개혁신학적 관점에서 그의 신학을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서평하였다. 이승구, 『코넬리우스 반틸: 개혁파 변증학의 선구자』 (서울: 살림, 2007, 2012). 김남식 박사는 이 책에 대한 서평에서 반틸의 제자이며 연구가인 '존 프레임의 스타일을 계승'한 이승구 박사의 이 책은 한국 학자의 심도는 있는 연구서라고 평가한다. 이 책에서

적으로 김병훈 박사와 박찬호 박사가 있다. 김병훈 박사의 평가는 성암을 역사적 정통 개혁신학자로 성경적 신학을 추구하는 신학자로 한국교회에 공헌하였다고 평가한다.⁹ 『전환기의 개혁신학』¹⁰에 대한 서평에서 성암을 17세기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에 충실한 신학자로 평가하고, 성경의 교훈을 따르는 보스(G. Vos), 안토니 A. 후쿠마(Anthony A. Hoekema), 반틸(C. Van Til), 그리고 로버트 래팜과 같은 여러 개혁신학자들을 다루고 그들의 신학적 특성을 분별하고, 16-17세기 역사적 개혁신학과 그들을 비교한 것이 큰 신학적 공헌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¹¹ 박찬호 교수도 이승구 교수의 『사도신경』에 대한 서평에서 그의 신학에 대한 몇 가지를 언급한다. 신학적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의 믿는 바의 내용을 정확히 표현하는 학자이며, 또한 그것을 우리의 삶과 목회의 정황에 맞게 설명하는 신학자로 진술하였다.¹²

본 연구는 1987년부터 그의 평생 연구과제로서 그의 개혁신학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배경을 살피고, 개혁신학자로서의 그의 개혁파 조직 신학 방법에 대해 탐구한다.

II. 개혁신학의 배경

그는 초등학교 1학년 때 12월의 어느 주일날 아침에 밖에 놀러 나갔는데 마침 그때 친구 하나가 교회를 가자고 전도하여 서울 종로구에 있는 원

반틸은 성경에 충실하고 성경적 가르침에 충실한 신학적 활동한 점을 잘 드러냈다고 평가한다. 김남식, “『코넬리우스 반틸』 - 개혁파 변증학의 선구자 - 이승구 지음, 4×6판 양장, 248면, 살림출판사, 2007”, 『신학지남』 75(2) (2008): 355-358.

⁹ 김병훈, “서평 21세기 한국교회, 성경적 신학을 구축하라”, 『그말씀』 (2008), 8. http://duranno.com/moksin/gms_detail.asp?cts_id=70048, 2023-12-03 접속.

¹⁰ 이승구, 『전환기의 개혁신학 - 20세기 후반 영미 개혁신학의 동향』 (서울: 이레서원, 2008, 2판, 2016).

¹¹ 김병훈, “서평 21세기 한국교회, 성경적 신학을 구축하라”.

¹² 박찬호, “교회와 신학의 ‘아름다운 동행’: 이승구 교수의 『사도신경』에 대한 서평”, 『목회와 신학』 243권 9월호 (2009): 174-177.

남교회를 가게 되었다.¹³ 중고등학교 시절 교회에서 이철 목사에게 배웠고, 정훈택 교수가 충신대학교 1학년 학생시절에 그에게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배웠다고 한다.¹⁴ 또한 그때부터 아브라함 카이퍼(A. Kuyper)의 칼빈주의를 읽고, 박형룡 박사의 조직신학 서론을 열심히 노트 필기하면서 읽었다고 한다. 칼빈을 좋아하였고, 교회 사역자들이 개혁주의를 가르쳐 주었다고 한다.¹⁵ 중학교 때 벌써 꿈이 목사가 되는 것이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충신대학교에 입학하여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하면서 꾸준히 신학책을 읽었으며, 김홍전 박사의 제자이며 신약신학자인 최낙재 교수와 손봉호 박사와 같은 분들에게 영향을 깊게 받았다. 손 박사의 영향으로 후에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고, 대학원 논문으로 1984년 “일상 윤리학파의 윤리설의 가치 교육적 함의”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지만, 그러나 신학에는 큰 도움은 되지 못했다고 한다.¹⁶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에 입학하여 당시 박윤선 박사에게 계시의존사색을, 최낙재 교수에게 성경신학을 철저하게 배우게 되었다. 1982년 입학한 후에 조직신학자 신복윤 박사의 지도로 개혁파 조직신학을 배웠다. 졸업하기전 이미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교에서 석사를 받았고 합신에서 졸업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위하여 영국 유학길을 오르게 되었다. 거기에서 다프네 햄슨(Margaret Daphne Hampson) 박사의 지도하에 1985년 “The Relation of Karl Barth’s Understanding of Revelation to that of Søren Kierkegaard”로 석사학위를 받았다.¹⁷ 석사논문이 워낙 뛰어나서 에딘버러

¹³ 이승구, “이승구 교수 인터뷰”, 솔리데오글로리아교회(김병혁), 2018년 6월 20일, <http://sdgchurch.kr/leeseungu-interview/>. 2023-12-03 접속. 이승구, “마 26:46-56 설교”, 언약교회, 2022-07-03. <https://www.youtube.com/watch?v=hUGhfSWnLvs>. 2023-12-03 접속.

¹⁴ “이승구 교수 인터뷰” (2018년).

¹⁵ “이승구 교수 인터뷰” (2018년). 그의 지적인 성숙은 고등학교 때부터 나타났는데 한 번은 교회에 특강 강사로 온 서울대학교의 종교학과 교수였던 신사훈 박사가 키에르케고르가 누구인가? 라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였는데, 그가 주저함 없이 실존주의 철학자라 대답하였더니 신사훈 박사가 매우 놀라면서 서울대학교 학생들도 잘 알지 못하는데 고등학생이 대답을 한다고 칭찬을 받았다고 한다. 이런일은 후에 그는 키에르케고르에 대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쓰게되는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¹⁶ 이승구, “이승구 교수와 인터뷰”, 주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공부시절, 2022년 7월 9일.

대학교의 교수이며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편집위원인 Allan Lewis 교수로부터 박사논문으로 인정할 정도로 칭찬을 받았다. 그는 “The Relation of Christianity to the Ethical Sphere in the Thought of Søren Kierkegaard”라는 주제로 1990년 Ph.D. 학위를 받았다.¹⁷ 이 논문 안에서 자아(the self)의 개념에서 슐라이에르마허(F. D. E. Schleiermacher)와 바르트(K. Barth) 그리고 헤겔(Georg W. F. Hegel)과 관련된 신학적 논의를 다룬다. 1990년 박사학위를 마치고 미국 Yale University의 Divinity School에서 Post-Doctoral Research를 2년간(1990-1992) 하면서 그 동안 자신의 학문적 훈련을 정리하고 한국교회와 신학활동을 위하여 준비를 한 후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의 첫 번째 중요한 신학 작업은 영국 유학시에 영국의 저명한 신학자들과 신학 주제에 대하여 인터뷰를 한 후에 『현대 영국 신학자들과의 대답』을 1992년에 출판한 것이다.¹⁸

그의 개혁신학의 접목은 그가 대학시절부터 저명한 신학자들의 책 30권 정도를 번역하면서 그들의 학문성을 일찍 수렴하였기에 그의 신학적 학술성의 깊이와 폭이 일찍 빠르게 발전되어서 후에 한국의 대표적인 조직신학자가 되었다. 그는 개혁신학 연구와 더불어서 신학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헌신하였다. 1996년 한국개혁신학회 창립에도 관여하였고, 1997년 8월 28일 한국성경신학회 발족모임을 갖고 10월 29일에 창립을 주도하였다. 그는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 받는 것이 개혁신학이며, 종교개혁은 예수를 믿되 성경대로 믿는 것이라고 한다.²⁰ 개혁신앙이란 우리의 믿는 바를 성경이 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 개혁신앙이라고 한다. 이

¹⁷ Seung Goo Lee, “The Relation of Karl Barth’s Understanding of Revelation to that of Søren Kierkegaard” (M.Phi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St. Andrews, 1985). 논문다운 <https://research-repository.st-andrews.ac.uk/handle/10023/13861>. 2023-12-03 접속.

¹⁸ Seung Goo Lee, “The Relation of Christianity to the Ethical Sphere in the Thought of Søren Kierkegaard” (Ph.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St. Andrews: 1990). 논문다운 <https://research-repository.st-andrews.ac.uk/handle/10023/13963>. 2023-12-03 접속.

¹⁹ 이승구, 『현대 영국 신학자들과의 대답』 (서울: 엠마오, 1992).

²⁰ 이승구, “신학자, 교회개혁을 말하다 ②”, 기독교신문, 2017.02.06.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561>. 2023-12-03 접속.

런 신학적 전통 위에서 성경을 따라서 그리고 칼빈을 따라서 신학을 세워가는 오직 성경에 충실한 소중한 한국의 개혁신학자가 되었다.

그의 개혁신학의 형성에는 중요한 신학자들의 영향이 있었다. 그의 신학사상은 박윤선 박사의 성경적 정통주의 신학을 배움으로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성경의 권위와 해석, 하나님의 주권사상, 성경 중심주의, 교회 중심주의, 그리고 일반은총에 근거한 개혁주의 문화관에서 영향을 받았다.²¹ 스승인 정암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에 의존하여 생각하는 계시의존사색에 근거하여 신학적 토대를 세우게 되었다.²² 개혁파 성경신학의 아버지 보스는 현재까지 정암의 성경적 신학적 사고의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 개혁신학자로 존중받고 있다. 보스를 통하여 성경을 이해하는 근본적 사고를 접하고 보스는 그에게 특별계시의 역사를 보는 눈을 뜨게 한 학자로서 성경 전체를 잘 해석할 수 있는 틀을 배웠다고 한다. 보스의 시각으로 보면 칼빈은 성경을 flat(평면적으로) 하게 이해하는데 바로 이런 보스의 시각은 칼빈에게 배운 것으로 그것을 더 구체화하여 자신의 성경신학을 발전시킨 것으로 주장한다.²³ 성경신학에 대한 영향은 그가 보스의 성경신학을 1985년 번역 출판에서 나타나고²⁴ 보스가 주장하는 특별계시의 역사로서 성경신학과 계시의 점진성에서 큰 도전을 받게되었다.²⁵ 그가 주장한 ‘성경신학적 사유’라는 개념은 보스의 특별계시의 역사를 강조하는 성경신학에서 가져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 계시가 어떤 역사적 과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탐구하는 학문인데, 그것을 탐구하는 것도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자들이 그 계시가 주어진 방식에는 무

²¹ 이승구, “정암 박윤선 박사의 생애와 신학”, 『한국 교회를 빛낸 칼빈주의자들』, 안명준 편 (서울: 킹덤북스, 2020), 607-651.

²² 이승구, “정암(正岩) 박윤선 목사님을 기리면서”, 이승구 교수의 개혁신학과 우리사회 이야기, <https://blog.daum.net/wminb/13718731>. 2023-12-03 접속.

²³ “이승구 교수 인터뷰” (2018년).

²⁴ Geerhardus Vos, *Biblical Theology*. 『성경신학』, 이승구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3).

²⁵ 이승구, “역자 후기”, 『성경신학』, 443-444.

관심하고, 의도하지 않게 성경을 무시간적으로 쉽게 다룬다고 한다. 바로 여기서 성경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문제점의 하나가 나타나는데, 이를 극복하는 것이 바로 “성경신학적 사유”라고 주장한다.²⁶ 신학 방법론에 있어서는 보스의 신학을 따라서 성경중심적-성경신학적 조직신학을 추구한다. 이런 방법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존 머레이(John Murray) 박사에 의해서 앞서 제시되었다. 그는 전제주의적 변증학과 관련하여 반틸의 신학사상에서 깊은 영향을 받았다.²⁷ 그는 개혁파 변증학자인 반틸의 소증함에 대한 의미있는 활동은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학생시절 조직신학에 관심이 많았고 졸업 논문에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데, 개혁신학자 신복윤 박사의 지도로 “반틸 사상에서 합리성에 관한 연구”를 썼다.²⁸ 이 논문은 반틸 사상에서 합리성 혹은 합리적인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된다면 참다운 기독교적 인식론을 제시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 논문의 연구를 통하여 반틸은 합리성이란 궁극적인 어떤 보편적인 원리를 따르거나, 인간 정신의 궁극성과 자율성 개념을 본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오히려 하나님은 절대 합리성으로서 합리성의 원천이라고 보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파생적인, 유비적인 합리성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지식과 체계 그리고 논리와는 유비적인 관계이며,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한다. 구속함을 입은 인간의 지식, 체계, 논리 그리고 이성 원칙상 참될 수가 있지만 창조주와는 차이를 전제로 가진다고 한다. 이런 주장은 현대 인식론의 합리성 개념에 강한 도전을 준다고 한다.²⁹ 이 논문은 2007년 『코넬리우스 반틸: 개혁파 변증학의 선구자』를 쓰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학

²⁶ 이승구, “성경신학적 사유의 개발을 요청하면서”, 이승구 교수의 개혁신학과 우리사회 이야기 <https://blog.daum.net/wminb/13719347>. 2023-12-03 접속. 참고로 「합신은 말한다」 2021년 9월호.

²⁷ Cornelius Van Til, *The Reformed Pastor and Modern Thought*. 『개혁신앙과 현대사상』, 이승구 역 (서울: 엠마오, SFC, 2009).

²⁸ 이승구, “이승구 교수와 인터뷰” (2022년), 주제: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공부시절, 2022년 7월 9일. 이승구, “Cornelius Van Til에서의 합리성에 관한 연구” (M.Div., 합동신학교, 1987). 지도교수는 신복윤 박사로 주로 반틸의 영어원문을 가지고 연구를 하였다. 논문검색을 위하여 <http://www.hapdong-lib.ac.kr/thesis/T1600123.pdf>. 2023-12-03 접속.

²⁹ 이승구, 『개혁신학에의 한 탐구』 (서울: 1995, 웨스트민스터출판부), 제 10장, 217-256.

자들이외에도 정통주의적 개혁주의에 가장 충실하면서도 다양한 현대인들을 잘 설득하는 개혁주의 조직신학자 데이비드 F. 웰스(David F. Wells)³⁰의 기독교론 연구와 종교개혁적 문화적 변증에 영향도 깊게 받았으며,³¹ 성경과 권위와 무오를 주장하면서 신문과 구원론에 있어 개혁신학을 잘 보여주는 조직신학자 제임스 패커(James I. Packer),³² 루이스 벌코프(Louis Berkhof), 안토니 A. 후쿠마와 같은 신학자들에 대한 존경과 그들의 개혁신학적 크게 영향도 나타낸다.

Ⅲ. 성경에 근거한 정통개혁신학 방법

그는 성경적 원리를 강조하는 학풍과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라서 완성된 정통 개혁주의신학에 의하여 그의 신학의 모습이 형성되었다. 그는 기독교의 모든 기본 개념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해 주는가를 배워야’ 하고 우리 공동체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야 한다고 한다.³³ 이런 그의 성경중심적 사상은 성경관에서부터 시작하여 종말론과 기독교 세계관 그리고 기독교 문화관, 그리고 신학교육과 목회현장에 걸쳐서 총체적으로 퍼져있다. 이런 그의 성경 강조 사상은 그의 책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강해시리즈 1』 초판 서문에서 밝힌 것처럼 이 요리문답을 설명하는 해설서로서 이 책을 쓰기보다는 그 문답들이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 근거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을 전 포괄적으로 강해하려는 시도와 그는 성경 본문과 성경적 주제에 대한 해석에 언제나 관심의 초점이 있다고 언

³⁰ 웰스는 1992년 부활절에 쓴 한국어 번역판 서문에서 직접 이승구 박사에 대한 영예와 감사를 표하고 미국과 한국 사이의 문학적, 신학적 교류가 점증하고, 특별히 장래 한국으로부터 미국에 미치는 영향이 점증하기를 희망한다고 격려하고 있다. 데이비드 F. 웰스, 『기독교론』, 이승구 역 (서울: 토라, 2015), 5-6.

³¹ 이승구, “데이비드 웰스의 현대 문화 분석에 대한 한 논의”, 『조직신학연구』 35권 (2020): 26-64. 이승구, 『데이비드 웰스와 함께하는 하루』 (서울: 말씀과 언약, 2021).

³² 이승구, “제임스 패커 교수를 추모하며”, 크리스천투데이, 2020-07-22,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3270>. 2023-12-03 접속.

³³ 이승구, 『교회론 강설: 교회란 무엇인가?』 (서울: 여수론, 2002), 16.

급한 점에서 확고하게 나타난다.³⁴ 그러므로 그의 신학을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성경적, 성경신학적, 개혁신학적 사유의 신학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평생의 학문의 목표인³⁵ 개혁신학의 진지한 탐구를 위해 긴 여정을 떠난 학자로서 그가 1987년에 연구한 첫 작품으로 『개혁신학에의 한 탐구』를³⁶ 시작으로 “개혁신학의 독특성”³⁷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1992년에 발표하고, 『21세기 개혁 신학의 방향』(2005, 2018)까지 30년 이상 관련된 주제의 저서와 논문이 발표되면서 이 연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개혁신학에 대한 그의 연구를 위해서는 이 주제와 관련된 중요한 작품들은 『개혁신학 탐구: 한국 개혁신학의 전망』(1999), 『21세기 개혁 신학의 방향』(2005, 2018), 『코넬리우스 반틸: 개혁과 변증학의 선구자』(2007), 『전환기의 개혁신학-20세기 후반 영미 개혁신학의 동향』(2008), 『툼 라이트에 대한 개혁신학적 반응』(2013), 『우리 이웃의 신학들』(2014), 『성경신학과 조직신학』(2018)등이 있다. 이런 지속적인 연구속에서 그가 개혁신학을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이 그가 출판하는 개혁신학탐구 시리즈 이름에서도 그리고 수많은 논문에서 나타난다.

특별히 그는 개혁신학이라는 용어를 좁은 의미로 사용한다. 넓은 의미에서 사용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한 프레드 클로스터(Fred H Klooster)의 의견에 따라서 칼 바르트(Karl Barth)나 에밀 브루너(Emil Brunner), 오토 웨버(Ottor Weber), 몰트만(Jürgen Moltman)과 같은 학자들의 신학은 그들 나름대로 독특성을 지닌 새로운 형태의 신학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본다. 자신이 말하는 개혁신학이란 개혁과 정

³⁴ 이승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강해시리즈 1』(서울: 나눔과섬김, 2011), 11.

³⁵ 이승구, 『개혁신학에의 한 탐구』(서울: 웨스트민스터 출판부, 2004), 7.

³⁶ 신학자로 첫 저작인 이 책에서 성암은 개혁신학이라는 신학사상을 처음으로 사용하고 지속적인 개혁신학의 탐구를 공개적으로 밝힌 작품이다. 이 책은 그의 스승인 신복용 교수와 박형용 교수를 비롯한 모두 7 분들에게 먼저 글의 검독을 의뢰하여 최종 1995년 4월 20일에 발행되었다. 아마도 이 책을 출판하는 과정에서도 매우 분주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의 아내는 첫 딸을 출산하였고 영국으로 두 번째 출국을 5일 앞두고서 이 책의 원고를 출판사로 넘긴 날씨는 8년 후 1987년 9월 10일로 되어있다.

³⁷ 이승구, “개혁신학의 독특성”, 『개혁신학: 라보도 박사 60회 생신 기념 논문집』(서울: 웨스트민스터 신학원, 1992), 189-237.

통주의적 신학이라고 한다, 그 전통적 특성들은 성경의 정확무오성, 하나님의 구원사역에서 독력주의, 교회 조직과 예배에서 성경적 원리를 강조하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한다.³⁸ 이런 개혁파 정통주의 학자들로는 찰스 핫지(C. Hodge), 워필드(B. B. Warfield), 게할더스 보스, 루이스 벨코프, 코넬리우스 반틸, 그레스햄 메이첸(J. G. Machen), 존 머레이, 고든 스파이크맨(G. J. Spykman), 리차드 린츠(R. Lints), 데이비드 웰스, 그리고 케빈 반후저(K. Vanhoozer)와 같은 학자들을 말한다.³⁹

1. 개혁신학의 전제들

참된 개혁신학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는 계시의존적 사색을 시도하여 성경신학과 조화를 이루는 조직신학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한다.

1) 계시의존사색(啓示依存思索)

그는 신학이란 말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학문(*scientia Dei*, *science of God*)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신학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경륜 전체를 생각하고 그 함의를 이끌어 내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는 매우 이론적이면서도 동시에 실천적인 학문으로 본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믿고 있는바 신앙이 마땅히 표현되어야 하는 바른 방식을 찾아 진술하고 그것에 근거해 사는 것이라고 한다.⁴⁰ 그에 따르면 신학은 잘못된 방식이 아닌 바른 신학을 따라야 하는데 계시 의존 신학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한다. 타락한 인간의 이성 중심으로 데카르트에 뿌리를 둔 합리주의적 신학(*rationalistic theology*) 즉 카르테시안 신학(*Cartesian theology*)이나 하나님에 대한 경험(*God-experience*)이나 그와 같은 종교적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신학적 작업을 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바른 신학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것과 하나님의 경륜에서 나타

³⁸ 이승구, 『전환기의 개혁신학 - 20세기 후반 영미 개혁신학의동향』, 6-7.

³⁹ 이승구, 『전환기의 개혁신학 - 20세기 후반 영미 개혁신학의동향』, 7-8.

⁴⁰ 이승구,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서울: SFC, 2018), 580.

내 보이신바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해서 신학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 계시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하는 일이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바를 계시하신 바를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라는 뜻에서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하였고, 그런 신학을 계시 의존 신학이라고 한다. 이런 사상은 그의 은사인 박윤선 박사의 주장에 전적으로 따르는 것이다.⁴¹

2)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의 유기적-상호의존적(organic codependent) 관계

그는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서문에서 조직신학이 개혁주의 성경신학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조직신학은 성경신학이 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성경 주해에 근거해야 하며, 또한 성경신학이 밝혀 보여 주려고 하는 특별 계시의 역사에 유의하면서 신학적 작업을 해야 하고, 성경 계시가 밝혀 주는 구속사에 유의해서 그 신학의 틀을 구속사를 중심으로 새로 구성하고, 구속사적 진전에 유의하여 언약의 역사적 발전을 주의 깊게 추적해 나가야 하며, 우리가 속한 구속사의 시기인 “종말”의 의미에 충실한 작업을 하도록 주장한다. 그리하여 이런 성경신학의 가르침을 잘 반영한다면 조직신학은 발전할 것이라고 한다.⁴² 가장 바른 성경신학은 성경적이며 동시에 성경으로부터 바르게 도출된 바른 교리(orthodoxy)에 충실하는 성경신학이라고 하며, 가장 바른 조직신학도 성경적이면서 특별계시의 역사에 유의하는 조직신학이라고 한다.⁴³ 그는 이두 관계가 해석학적인 순환과 같으며, 서로 상호 배타적이며 경쟁적이 아닌 유기적 상호의존적(organic codependent)으로 바라본다. 이렇게 조화가 잘 된다면 서로를 풍요롭게 하고 신학 전체와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고 한다.⁴⁴ 조직신학은 성경의 가르침에 항상 충실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그의 경륜을 연구하는 신학 중에서

41 이승구,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581-582.

42 이승구,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50.

43 이승구,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10.

44 이승구,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51.

성경과 역사의 과정에서 배운 모든 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조직신학의 작업 속에서 항상 성경적이며, 성경 주해에 근거한 성경에 일치한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한다.⁴⁵

2. 개혁신학의 원리와 조직신학의 방법

그는 개혁신학의 특징을 드러내는 기준으로 신학의 원리에 대한 충실성이라고 한다. 이런 그의 견해는 위펄드와 반틸의 개혁신학 사상에 동의 하면서 개혁신학의 근본적 뼈대를 이루어간다. 또한 그는 프레드 클로스터가 성경적 원칙에 근거한 개혁신학을 주장한 점에서 높게 평가한다.⁴⁶ *Tota scriptura*와 *sola scriptura*에 근거한 성경적 원리(scriptural principle)가 개혁신학을 개혁신학이게 하는 그 시금석(criterion)이라고 주장한 클로스터의 말을 언급한다.⁴⁷ 이것이 개혁신학의 기준이라고 하며 이 원리에 근거하여 자신의 개혁파 조직신학 방법을 형성한다. 위펄드는 그 개혁신학의 근원적 형성원리로 가장 깊은 신의식 즉 피조물이 하나님께 대해 가지는 깊은 관계의식을 주장하는데 성암은 이런 견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1987년 5월에 쓴 작품 『개혁신학에의 한 탐구』에서 개혁신학의 원리를 정리하고 자신의 견해로 개혁신학의 원리(*principium*)에 대한 잠정적 결과를 몇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로 개혁신학은 존재의 원리(*principium essendi*)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한다. 개혁신학은 신 중심적 신학(theocentric)이며, 하나님과 피조물의 차이를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을 전제하며, 그를 모든 다른 것의 존재 원리로 본다고 한다. 하나님은 자충족적인 하나님이며 그의 경륜(counsel) 역시 그러한 것이 된다고 한다. 둘째로 개혁신학의 외적 인식의 원리(*principium cognosendi externum*)로 하나님의 특별계시를 언급한다. 개혁신학은 그 외적 인식 원

⁴⁵ 이승구,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573. 김재윤, “성경을 가르치는 조직신학의 가능성에 대한 일고찰”, 『성경과 신학』 103 (2022): 35-66.

⁴⁶ 이승구, 『개혁신학에의 한 탐구』, 123.

⁴⁷ 이승구, 『개혁신학에의 한 탐구』, 127.

리로 성경을 말하며, 신학적으로 무엇을 인식하는 그 대상이 성경에 의해서만 주어진다고 주장하는 것이 개혁신학이라고 한다. 신학자가 신학적 지식을 얻는 유일한 원리(*principium unicum*)가 성경 뿐이며,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며, 신학의 원천(*fons theologiae*)으로 항상 살아 있는 원천(*a living fountain*)이라고 한다. 성신께서 쓰셔서 당신을 알리시는 수단으로 이해하라고 한다. 그러므로 충실한 개혁신학은 성경의 원리에 충실하며,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을 강조하고, 성경 전부(*tota Scriptura*)를 드러내며, 그 앞에 순종하고, 역사적 점진성에 유의하며, 그 유기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한다. 셋째로 개혁신학은 내적 인식 원리(*principium cognoscendi internum*)를 신앙으로 여긴다. 신앙은 오직 외적 인식원리인 성경에 대한 반응이라고 한다. 이 신앙은 포괄적으로 우리의 삶 전체와 관련된다고 한다. 실천적 문제에 관여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신앙이 작동함을 요구하며, 이원적 사고를 극복하고 전일적 집중과 전포괄적 관심을 생성하는 것이라고 한다. 결과적으로 별코프는 세가지 신학의 원리가 하나(*a unity*)를 이룬다고 한다.⁴⁸ 이 세가지 신학의 원리는 개혁신학의 근원적 형성 원리요, 개혁신학과 그 독특성을 판가름하는 시금석 역할을 한다고 한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의 신학, 정경적 원칙의 신학,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신학이 개혁신학을 개혁신학이게 하는 시금석으로 제시한다.⁴⁹

성암에 따르면 조직신학을 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러나 계시의존적으로 전개된다면 성경에 합당한 조직신학 방법으로 인정한다. 정통적 개혁신학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교회의 기본적인 신조인 사도신경이나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와 칼세돈 정의를 설명하는 방식,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등을 잘 설명하는 신조 강해식 방법, 삼위일체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삼위일체적 방법(*the Trinitarian Method*),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언약의 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⁴⁸ 이승구, 『개혁신학에의 한 탐구』, 135.

⁴⁹ 이승구, 『개혁신학에의 한 탐구』, 135.

접근하는 방식, 이와 연관된 구속사적 접근 방식,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하나님 나라 개념을 중심으로 한 방법도 가능하다고 한다.⁵⁰

성암은 벌코프의 조직신학에서도 나타나는 전통적인 종합적 방법(the synthetic method)을 보면서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하나님과 관련하여 논의될 수 있는 모든 주제들을 논리적 순서에 따라 논의를 시작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논의(theology proper)로부터 인간과 죄 문제(anthropology)를 다루고,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를 논의하고(Christology),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성령님께서 적용하시는 구원에 대해서 논의(soteriology)한 후, 구원받은 공동체인 교회에 대해서 다루고(ecclesiology), 마지막에 종말의 문제(eschatology)를 다루는 방식으로 마친다. 그러나 성암은 위의 방법은 신학의 통일성을 드러낼 수 있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지만, 조직신학이 항상 이런 방법으로부터만 수행되어야 한다는 경직된 이해에 대해 경고한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를 신조와 삼위일체적 구조를 가진 방법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한다. 이렇게 할 때 성령론이라는 이름이 확보되어 종합적 방법에서 이미 다루어진 성령의 사역이 무시된다는 공연한 오해를 불식할 수 있고, 십계명을 성도의 삶의 지침으로,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기도의 모델로 제시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그는 조직신학은 계시 의존적이기만 한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좋다고 한다.⁵¹ 또한 이들 주제 외에도 이렇게 성경적으로 제시된 교리를 변증하는 방법과 태도를 다루는 <변증학>, 교리의 형성 과정을 다루고 그 내적 연관성을 생각하는 <교리사>⁵²등의 조직신학의 모든 하위 과목을 다룰 때도 철저하게 계시 의존적이며, 성경적으로 그리고 성경의 내용과 계시의 틀까지도 존중하면서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⁵³ 그러므로 개혁신학은 무엇

⁵⁰ 이승구,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578.

⁵¹ 이승구,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588.

⁵² 최근의 개혁신학적 관점에서 교리의 형성 과정을 탐구 한 교리사로 이승구, 『교리사: 개혁파적 교의사의 한 시도』(수원: 합신대학원출판부: 2023).

⁵³ 이승구,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589.

보다도 성경 중심의 신학 방법을 추구한다고 한다. 이런 추구는 개혁신학이 성경과 궁극적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한다.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참으로 유의하며, 각 부분의 가르침에 유의하면서 그 전체 사상의 통일성을 참으로 인정하는 성경 계시의 역사적 진전을 살피는 성경신학적 과제도 수행할 것을 주장한다.⁵⁴ 이런 견해는 신학적 사유를 성경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한다는 계시 의존 신학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한다.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성경을 통해서만 특별 계시의 내용을 알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만 일반 계시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으므로, 계시 의존 신학이란 결국 성경중심적 신학을 뜻한다고 한다. 이런 방법은 대조적으로 인간의 이성, 경험, 전통, 역사를 신학의 궁극적 원천으로 보지 않고, 오직 최종적인 결론은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내린다는 오직 성경의 원리를 기초로 탐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경 안의 정경’의 원리를 말하는 이들에 대항하면서 오히려 성경의 가르침 전체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 전체(the whole counsel of God)를 중심으로 신학적 사유를 전개하여 나간다는 것이며, 성경 신학적 태도를 가지고 신학 방법을 탐구하는 것을 뜻한다고 한다.

성경중심의 신학방법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서 그는 개혁신학에 근거한 성경해석 방법을 제안하는데,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은 항상 주어진 계시의 시대적 특성을 생각하면서 성경 전체의 맥락과의 관련하여 진행되어야 한다고 한다. 개혁파의 성경 신학적 태도는 “특별 계시의 역사적 과정”을 중시하면서 그 틀 위에서 사고하며 사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 잘못된 해석 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말한다.

- (1) 계시의 흐름을 생각하지 않고 무시간적으로 성경을 연결시키려는 무시간적인 해석, (2) 계시의 유기적 연관성을 생각하지 않고 세대별 구원방도의 차이를 생각하며 이스라엘과 교회라는 두 개의 하나님 백성의 도식을 아주 강하게 대조시키며 강조하는 세대주의적 해석, (3) 이른 시

⁵⁴ 이승구, 『21세기 개혁 신학의 방향』 (서울: CCP, 2018), 150-151.

기에 후대의 계시를 무리하게 부과(impose)하려는 지나친 모형론적 해석 같은 것이 우리의 성경 해석에서나 설교에서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⁵⁵

또한 그는 조직신학의 올바른 방법을 이루기 위한 역할을 몇 가지를 제시한다. 설교와 가르침이 기독교의 신념 전반을 제대로 가르치고, 또한 가르침을 받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 역사적 전통 가운데서 성경에 일치하는 것은 보존하면서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것들 가운데서 비성경적인 것은 성경에 근거해서 제거하여 교회를 항상 개혁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 마지막으로 교회가 직면한 새로운 문제 앞에서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성경에 근거해서 바르게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⁵⁶ 이와 같은 역할이 시도될 때 계시의존 사색적 신학의 정체성과 방향을 바르게 이끌 것이다.

IV. 개혁파 조직신학의 특징

그는 2005년에 개혁신학의 특징들을 특별히 하나님 나라 관점⁵⁷에서 강조하고 있다.⁵⁸ 몇 가지로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의 원리에 철저히 의존하는 개혁파 신학의 특징들을 몇 가지로 주장한다.⁵⁹ 첫째로, 하나님 주권에 대한 철저한 인정을 말한다.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모습에 따라

⁵⁵ 이승구, 『21세기 개혁 신학의 방향』, 19.

⁵⁶ 이승구,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576.

⁵⁷ 이승구, “제 2 부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의 삶”, 『개혁신학에의 한 탐구』, 51-88.

⁵⁸ 이승구, “종말신학의 프롤레고메나: 하나님 나라 신학을 지향하며”, 『개혁신학 탐구: 한국 개혁신학의 전망』, 17-41. 이승구, 언약교회 설교, 2022년 9월 4일.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EC%9D%B4%EC%8A%B9%EA%B5%AC+%EC%96%B8%EC%95%BD%EA%B5%90%ED%9A%8C. 2023-12-03 접속.

⁵⁹ 이승구, 『21세기 개혁 신학의 방향』, 13-27.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들이 가장 성경에 충실한 하나님 개념을 제시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을 강조하는 신학이라고 한다. 존재의 원리(*principium essendi*)로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여러 신학적 표현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let God be God)하는 일에 충실하는 것이 개혁신학인데, 지금도 온 세상을 붙들고 섭리해 가시는 분으로서 이 세상 전체에 대하여 온전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점을 바르게 인정하는 신학이라고 한다. 둘째로, 성경에 충실한 조직신학을 추구한다.⁶⁰ 성경을 하나님의 유기적 영감(*organic inspiration*)으로 주어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서 그 성경에 충실한 작업을 하여 가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의 영감과 무오성은 개혁파 조직신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전제의 하나이며 그것의 정확한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 그 과제 중의 하나이고, 이를 잘 변증하는 것이 19세기 이후 우리에게 주어진 근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성경의 토대로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형성해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성경의 내용을 하나님의 계시로 수납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성경을 계시답게 받아들이는 것은 또한 성경의 계시적 구조, 즉 계시사적인 진전을 존중하면서 성경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받아들여서 해석하며, 그에 대해 정당하게 반응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는 성경에 나타난 특별 계시사에 주의하면서 해석하여 신학적 작업을 수행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⁶¹ 셋째로, 공교회의 신조들에 매우 충실한 신학과 교회를 위한 신학을 추구한다. 공교회의 신조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전 시대의 책임 있는 신학자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가장 성경에 충실하게 진술하려고 노력한 산물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개혁파 조직신학은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와 칼세돈 정의에 표현된 고전적 삼위일체론과 그리스도의 양성론에 매우 충실하게 된다고 한다. 또한 펠라기우스주의의 주장에 반(反)하는 어거스틴주의적 은혜론에 충실하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⁶⁰ 김재윤, “성경을 가르치는 조직신학의 가능성에 대한 일고찰”, 『성경과 신학』 103 (2022): 35-66.

⁶¹ 이승구,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585.

은혜론을 반-펠라기우스주의(semi-pelagianism)로 제시한 천주교의 사상적 왜곡에 반(反)하여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는 칭의와 그에 따라 나오는 성화를 강조하는 개혁파 교부들의 주장에 철저히 동의하는 것이라고 한다.⁶² 신학을 하는 목적은 우리 주님께서 그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 구속 하셔서 친히 세우신 교회를 섬기는 것인데, 모든 바른 신학은 모두 다 “교회를 위한 신학”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 진정 “교회를 위한 신학”은 성경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신학이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제시하는 신학이라고 한다.⁶³ 참으로 “교회를 위한 신학”을 하기 위해서는 신학자들과 그들이 있는 신학교, 그리고 참된 목회자들과 교회가 함께 협력해서 이 땅의 교회를 참으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을 향해 가도록 성경적 신학에 노력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라고 한다. 종교 개혁자들은 그 시대의 교회가 잘못된 신학 가운데서 잘못된 길을 헤맬 때, 성경의 가르침을 회복시켜서 그 시대의 교회를 참으로 살리며 바르게 섬기는 일을 하였듯이 잘못 형성시켜 온 사고 방식과 잘못된 신학을 성경적 신학에 근거해서 깨고, 성경적으로 바른신학을 새롭게 수립하는 작업을 하도록 촉구했다고 한다.⁶⁴ 그가 교회를 위한 개혁신학을 자신의 저서로 보내준 작품들은 『교회론 강설: 교회란 무엇인가?』, 『성령의 위로와 교회』,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21세기 한국 사회와 교회』, 『한국 교회가 나아 갈 길』, 『교회, 그 그리운 이름』 등이 있다.⁶⁵ 넷째로, 언약 신학적 관점을 중시한다. 개혁파 조직신학은 모든 주장의 토대가 된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에서 언약 신학적 구조를 찾아내어 해석하고 설명하는 언약 신학이라고 한다. 이는 신학사적으로 언약 신학을 개혁파 신학

⁶² 이승구,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585-586. 강웅산, “양자의 교리: 성경신학적-조직신학적 접근”, 『성경과 신학』 74 (2015): 65-96.

⁶³ 그리고 개혁신학은 공교회의 신조에 가장 충실한 신학이라고 한다. 그는 이어서 “공교회의 신조가 성경에 근거한 믿음의 내용을 표현해 보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개혁신학의 태도를 반영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개혁신학은 사도신조와 325년의 니케아 신조, 381년의 콘스탄티노플 신조, 그리고 451년의 칼시돈 신조 등의 공교회의 신조가 말하는 바에 가장 충실히 보려고 하는 신학이다.”라고 언급한다. 이승구, 『21세기 개혁 신학의 방향』, 151-152.

⁶⁴ 이승구, 『21세기 개혁 신학의 방향』, 19-24.

⁶⁵ 이런 관점을 알기위해서 한국성경신학회 학회지 「교회와 문화」의 창립취지문을 참고하라. http://kbs.kr/html/sub1_01.html. 2023-12-03 접속.

에서 가장 신경 쓰며 발전시켜 왔다는 사실과 동시에 성경 안에 언약이 진전해 가는 역사가 있다는 언약 신학적 주장을 말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개혁파 조직신학은 언약 신학(covenant theology)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 특별히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는 은혜 언약의 역사가 창세기 3장 이후의 성경 거의 모든 부분을 지배하는 구조임을 생각하면서 은혜 언약의 진전 과정을 중요시 한다고 한다. 다섯째로, 하나님 나라 신학을 강조한다. 모든 언약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하나님 나라이므로 개혁 신학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 신학(天國神學)이라고 한다.⁶⁶ 그 하나님 나라가 종말론적인 개념임을 생각하면 이는 또한 종말 신학이라고 한다. 개혁파 조직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온,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에서야 마침내 그 나라의 극치에 이를 하나님 나라의 신학이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제대로 증시(證示)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요 종말론적 공동체인 교회를 위한 신학이라고 한다. 다양한 복음주의 노선의 신학들과 비교하여 개혁파 조직신학은 성경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성경에 충실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복음주의 신학과 입장을 같이 하지만 큰 차이점은 무조건적 선택과 제한 구속론, 참 신자의 견인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더 철저한 구원론”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알미니안적 복음주의와 구별되고, 유아세례를 성경적으로 옳은 것으로 여긴다는 점에서 침례교적 복음주의와는 구별되며, 모든 장로는 감독이라는 입장을 성경적으로 여긴다는 점에서 성공회 안의 복음주의나 감리교 안의 복음주의와는 구별된다고 한다.⁶⁷

⁶⁶ 이승구, “종말신학의 프롤레고메나-하나님 나라 신학을 지향하며”, 193-225.

⁶⁷ 이승구,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586-587.

V. 결론

성암이 어떻게 개혁신학자가 되었는지 그 형성과정 그리고 그가 말하는 성경적 개혁신학의 조직신학 방법 그리고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는 성경적 개혁신학을 추구하는 개혁파 신학자로서 많은 저술과 번역 그리고 학회, 교회, 신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가 추구하는 신학의 내용은 학문적인 가치의 중요성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마땅히 배우고 실천해야 할 것들을 보여주는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 말씀의 신학으로서 개혁신학이다. 그는 교회론에 관한 여러 편에서 저서를 통하여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한 신학자일 뿐만 아니라 올바른 성경적 신학을 통하여 올바른 목회의 모범을 보이는 말씀 중심의 목회자이다. 이런 그의 활동 속에서 올바른 성경적 신학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한 그의 개혁신학적 성경신학적 접근은 다음 세대에 소중한 가치를 전달해 주는 귀중한 유산이 될수 있다. 혼란스러운 시대에 이성이나 과학이 아닌 오직 성경에 충실한 신학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성경적 개혁신학의 내용과 방법들의 관계성은 추가적 연구의 과제이며 미래의 지속적인 연구와 평가를 기다리게 한다.

참고문헌

1차 문헌

- 이승구. 『교리사: 개혁파적 교의사의 한 시도』. 수원: 합신대학원출판부, 2023.
- _____. 『현대 영국 신학자들과의 대담』. 서울: 엠마오, 1992.
- Schaff. “개혁신학의 독특성”. 『개혁신학: 라보도 박사 60회 생신 기념 논문집』. 서울: 웨스트민스터 신학원, 1992.
- _____. 『진정한 기독교적 위로』. 서울: 여수론, 1998. 개정판. 서울: 나눔과 섬김, 2013, 2015. 재개정판. 서울: 말씀과 언약, 2022.
- _____. 『개혁신학탐구』. 서울: 도서출판 하나, 1999. 개정판, 수원: 합신대학원 출판부, 2012.
- _____. “종말신학의 프롤레고메나-하나님 나라 신학을 지향하며”, 「성경과 신학」 제 13권 (1993): 193-225.
- _____. “서양신학을 향한 한국복음주의신학의 제언: 사도적, 성경적, 종말 신학에의 요청”. 「성경과 신학」 30권 (2001): 124-150.
- _____. 『성령의 위로와 교회』. 서울: 이레, 2001. 개정판, 2005. 개정 2판, 2009.
- _____. 『개혁신학에의 한 탐구』. 서울: 웨스트민스터 출판부, 1995. 개정판, 2004.
- _____. 『교회론 강설: 교회란 무엇인가?』. 서울: 여수론, 1996. 개정판, 2002. 재개정판. 서울: 나눔과 섬김, 2012. 5쇄, 2018. 개정판. 서울: 말씀과 언약, 2020.
- _____. 『인간 복제, 그 위험한 도전』. 서울: 예영, 2003. 개정판, 2006.
- _____.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서울: SFC, 2003. 재개정판, 2014.
- _____. 『사도신경』. 서울: SFC, 2004. 개정판, 2005, 재개정판, 2009.

- _____.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21세기 한국 사회와 교회』. 서울: SFC, 2005. 개정판. 서울: CCP, 2018.
- _____. 『21세기 개혁신학의 방향』. 서울: SFC, 2005, 2008. 개정판. 서울: CCP, 2018.
- _____. 『코넬리우스 반틸: 개혁파 변증학의 선구자』. 서울: 살림, 2007, 2012.
- _____. 『한국 교회가 나아 갈 길』. 서울: SFC, 2007. 개정판. 서울: CCP, 2018.
- _____. “개혁파 정통신학에 대한 멀리 테제에 대한 교의학적 성찰”. 『성경과 신학』 43권 (2007): 71-110.
- _____. 『전환기의 개혁신학』. 서울: 이레서원, 2008. 2판. 2016.
- _____. 『광장의 신학』. 수원: 합신대학원 출판부, 2010. 2판 2010.
- _____. 『우리 사회 속의 기독교』. 서울: 나눔과 섬김, 2010. 2판. 2012. 개정판. 『거짓과 분별』. 서울: 예책, 2014.
- _____. 『툼 라이트에 대한 개혁신학적 반응』. 수원: 합신대학원 출판부, 2013. 2판 2013.
- _____. 『우리 이웃의 신학들』. 서울: 나눔과 섬김, 2014. 2판, 2015.
- _____. 『위로받은 성도의 삶』.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강해 3. 서울: 나눔과 섬김, 2015, 2016. 개정판. 서울: 말씀과 언약, 2020.
- _____. 『묵상과 기도, 생각과 실천』. 서울: 나눔과 섬김, 2015.
- _____.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서울: SFC, 2018.
- _____.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감사의 최고 표현인 기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강해 4. 서울: 말씀과 언약, 2020.
- _____. 『교회, 그 그리운 이름』. 서울: 말씀과 언약, 2021.
- _____. 『데이비드 웰스와 함께 하는 하루』. 서울: 말씀과 언약, 2021.
- _____. 『성경적 종말론과 하나님 백성의 삶』. 서울: 말씀과 언약, 2022.
- _____. 『1세기 야고보 오늘을 말한다』. 서울: 말씀과 언약, 2022.

- _____. “성경신학적 사유의 개발을 요청하면서”. 「합신은 말한다」 2021년 9월호.
- _____.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 개념에 충실한 신학 작업을 지향하면서”. 「한국개혁신학」 66 (2020): 12-2.
- _____. “정암 박윤선 박사의 생애와 신학”. 『한국 교회를 빛낸 칼빈주의자들』. 안명준 편. 서울: 킹덤박스, 2020, 607-651.
- _____. *Barth and Kierkegaard*. Seoul: Westminster Theological Press, 1996.
- _____. “A Christian Answer to the World of Violence.” In *Christian Faith and Violence*. Vol. 2. *Studies in Reformed Theology* 11 (2003): 202-26. (Eds.) Dirk van Keulen and Martien E. Brinkman. Zoetermeer: Meinema, 2003.
- _____. “A Proposal for a Apostolic, Biblical, Eschatological Theology.” E. A. J. G. Van der Borgh. (Ed.) *Religion Without Ulterior Motive*, 159-78. Leiden & Boston, Brill, 2006.
- _____. “A Social Function of Coram Deo in the Thought of S. Kierkegaard.” *Journal of Reformed Theology* 1/2 (2007): 153-76.
- _____. “Christian Identity in the Korean Context.” In Eduardus Van der Borgh. (Ed.). *Christian Identity*, 373-92. SRT 16. Leiden and Boston: Brill, 2008.
- _____. “Pluralisme religieux et christianisme: Avec une reference speciale a l’interpretation du pluralisme religieux de John Hick.” *La Revue Reformee* (Marseille) 249-60/1-2 (249) (January, 2009): 87-103.
- _____.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ntological Trinity and the Economic Trinity.” *Journal of Reformed Theology* 3/1 (2009):90-107.
- _____. “Calvin’s Understanding of the Imago Dei and that of the Later Reformed Theologians: A Development?” at the 10th IRTI Conference at Aix-en-Provence, France, 6-12 July, 2009.
- _____. “A Biblical Theological Hermeneutics, the Pure Preaching of the Word of God, and the Unity of the Church.” In *The Unity of the Church: A Theological State of the Art and Beyond*, 105-10. Leiden and Boston: Brill,

2010.

_____. “L’ <<imago dei>> vue par Calvin et par les theologiens reformes qui ont suivi.” *Contre vents et mares* (Interpretation, 2014): 161-85.

_____. “Calvin and Later Reformed Theologians on the Image of God.” *Unio cum Christo* 2/1 (Aril, 2016): 135-47.

_____. “The Promises and Dangers of Public Theology.” *Unio cum Christo* 6/2 (2020): 133-45.

2차 문헌

김남식. “『코벨리우스 반틸』 - 개혁파 변증학의 선구자 - 이승구 지음, 4×6판 양장, 248면, 살림출판사, 2007”. 「신학지남」 75(2) (2008): 355-358.

강웅산. “양자의 교리: 성경신학적-조직신학적 접근”. 「성경과 신학」 74 (2015): 65-96.

김재윤. “성경을 가르치는 조직신학의 가능성에 대한 일고찰”. 「성경과 신학」 103 (2022): 35-66.

박찬호. “교회와 신학의 ‘아름다운 동행’: 이승구 교수의 『사도신경』에 대한 서평”, 「목회와 신학」 243권 2009년 9월호.

안명준. “이승구 박사의 생애와 신학”, 『한국의 신학자들 2』 인천: 아벨서원, 2023, 628-723.

_____. “성암 이승구 박사의 개혁신학 탐구: 개혁신학의 형성과 개혁파 조직신학”. 「신학정론」 제 41권 1 호 (2023): 15-62.

Letham, Robert. *Systematic Theology*. Wheaton, IL: Crossway, 2019.

Van Til, Cornelius. *The Reformed Pastor and Modern Thought*. 『개혁신앙과 현대사상』. 이승구 역 서울: 엠마오, 1984. 개정역. 서울: SFC, 2009.

_____. *Introduction to Systematic Theology*. 『조직신학 서론』. 이승구 역 서울: CLC, 1995.

Vos, Geerhardus. *Biblical Theology*. 『성경신학』. 번역 이승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5. 개정역, 2000. 2쇄, 2011. 3쇄. 2013).

_____. *The Self-disclosure of Jesus*. 『예수의 자기계시』. 서울: 엠마오, 1987. 개정역. 서울: 그 나라 출판사, 2014.

Wells, David. *The Person of Christ*. 데이비드 F. 웰즈,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승구 역. 서울: 엠마오, 1992. 『기독론』.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5.

홈페이지 자료들

Seung Goo, Lee. “The Relation of Karl Barth’s Understanding of Revelation to that of Søren Kierkegaard”. M.Phi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St. Andrews: 1985. <https://research-repository.st-andrews.ac.uk/handle/10023/13861>.

_____. *The Relation of Christianity to the Ethical Sphere in the Thought of Søren Kierkegaard*. Ph.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St. Andrews, 1990. <https://research-repository.st-andrews.ac.uk/handle/10023/13963>. 2023-12-03 접속.

이승구. “신학자, 교회개혁을 말하다 ②”. 기독교신문, 2017.02.06.,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561>. 2023-12-03 접속

_____. “정암(正岩) 박윤선 목사님을 기리면서”. 이승구 교수의 개혁신학과 우리사회이야기, <https://blog.daum.net/wminb/13718731>. 2023-12-03 접속.

_____. “이승구 교수 인터뷰”. 솔리테오글로벌리아교회, 2018년 6월 20일, <http://sdgchurch.kr/leeseungu-interview/>. 2023-12-03 접속.

_____. “레팜 교수님의 『조직신학』을 추천하면서”. 「합신은 말한다」 Vol. 36-2, 2021-06-15, http://htsn.kr/?page_id=4559&wr_id=620. 2023-12-03 접속.

_____. “제임스 패커 교수를 추모하며”. 크리스천투데이, 2020-07-22,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3270>. 2023-12-03 접속.

- _____. “Cornelius Van Til에서의 합리성에 관한 연구”. M.Div., 합동신학교: 1987. <http://www.hapdong-lib.ac.kr/thesis/T1600123.pdf>. 2023-12-03 접속.
- _____. 한국위피디아백과 <https://ko.wikipedia.org/이승구>.
Seung-Goo Lee. En. W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Seung-Goo_Lee
2023-12-03 접속
- 김병훈. “서평 21세기 한국교회, 성경적 신학을 구축하라”. 「그말씀」 2008, 8
http://duranno.com/moksin/gms_detail.asp?cts_id=70048. 2023-12-03 접속.
- 안명준. “서평: 하이델베르크 요이무답 강해 시리즈 3: 위로받은 성도의 삶,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월드뷰」 28권 9호 통권 183호
(2015): 42-46. <https://www.worldview.or.kr/library/article/2251>. 2023-12-03
접속.
- _____. “서평 우리 교회의 신학, 어디쯤 있나 <우리 이웃의 신학들>”. 「월드
뷰」 27권 11호 (2014): 46-49. [https://www.worldview.or.kr/library/
article/2037](https://www.worldview.or.kr/library/article/2037). 2023-12-03 접속.

Abstract

**A Study of on the Reformed Theology of
Dr. Seung-Goo Lee**

Ahn, Myung Jun*

This thesis is to study the method on the Reformed Theology of Seung-Goo Lee. H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scholars in Korea who has influenced upon the Korea Church and the field of theology of Korea since 1990. He translated many academic book of theology, and published many books and the important articles in the global world of theology. This research is to show how to form his Reformed Theology influenced by Yune-Sun Park, G. Vos, C. Van Til, and D. Wells, to investigate the presupposition, principle, method, and characteristic of his Reformed Theology. He insists that Reformed theology is based on the Scriptures, and his method of systematic theology used by C. Van Til is founded on the biblical theology with G. Vos. The characteristics of his Reformed theology are to show God's sovereignty, to pursue systematic theology faithful to the Bible, to pursue theology very faithful to the creeds of the catholic church and theology for the church, to emphasize on covenant theology, and to emphasize theology of the kingdom of God. His Reformed theology and biblical theological approach to achieve the integrity of correct biblical theology is a valuable legacy that passes on valuable values to the next generation.

Key-Words: Reformed Theology, Systematic Theology, Biblical Theology, Revelation-relied Thinking, G. Vos

* Visiting Professor, Korean Bible University